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인정

임실·순창·남원 도농인력지원센터 사업, 전국 최우수 등급 획득

임실군이 2017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을 매우 잘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임실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심층평가에서 '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사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의 139개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의 운영 취지와 실적에 매우 높게 평가했다.

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 사업은 임실군이 주관에 순창군과 남원시가 함께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선도사업으로 농민기 일손부족을 시달리는 농가에 일자리가 없는 대도시의 유희인력을 매칭해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는 저출산과 고령화, 농촌인력의 유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례로 꼽히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실제 임실군은 순창군과 남원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를 구성해 인력매칭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한 해동안 1만6,000여



임실군 '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심층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건의 일자리 매칭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품목인 복숭아와 양파, 감자, 고추, 파프리카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귀농귀촌인과 도시권 인력을 연결해 주는 농가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재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일손이 부족했던 농가에 적재적소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와 2017년 공모사업에 선

정된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을 연계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더 큰 시너지를 내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과 순창, 남원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와 농기계작업단을 연계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노후설계 노하우 전수 '엄지척'

순창군 어르신 대상 교육... 만족도 97.5% 기록 호평 잇따라

순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군민 노후준비 교육'이 교육만족도 97.5%를 나타내면서 호평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진행되며 순창군 어르신 480여명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관리 교육과 건강식단 체험, 사상체질을 통한 건강관리 등 건강교육은 물론 60대 이후 노년을 활기차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노후준비 교육도 진행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구립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후준비 교육결과 36명 참석자의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97.5%가 만족한 것으로 나왔다. 설문은 강의 장소와 숙박시설 등 환경과 교육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고무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았다. 참여교육생들은 "농촌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교육내용으로 특히 건강한 식생활 습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건강장수연구소의 발전된 모습과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에 놀랐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2차 교육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실시된 어르신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살맛나는 인생 2막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공병철장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동의대 윤현민 교수의 사상체질과 건강관리 교육, 조선대병원 여수점 강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특강이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특히 황숙주 군수가 문재인 정부의 농민정책과 순창군이 추진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고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진행해 참여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았다.

군은 8월 중 팔덕면과 순창읍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100세를 위한 군민 노후준비 교육을 추진하고 9월 이후 나머지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의 어르신들은 바쁜 농사일로 건강과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노후설계 노하우를 지역 어르신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알차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농민 애로사항 해결 앞장 불법 개간한 산지 양성과 추진

순창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추진해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임시특례제도(2016년 1월부터 시행)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한 임야이고 신청자격은 자기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인 밤, 감, 호두, 대추, 두릅 등은 제외되고,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부합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두드림프로젝트 개최 기관에

남원 항공우주전문대 선정

남원항공우주전문대(남원시 시설사업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고 (사)한국과학관협회 주관하는 2017 두드림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교실' 공모사업 개최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프로젝트는 전북권 과학문화 취약지역에 다양한 과학문화체험 전시시설과 전문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귀기금사업비로 전액 지원된다.

전북권 상반기 '찾아가는 과학관'은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8.08~13)에서 진행되며 이번 상반기 전시는 '우주로 가는 과학'을 주제로 과학사, 물리, 항공과학, 증강현실, 우주해양, 자이로스코프 등의 세부적인 단위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관람료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이동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드론분야 전문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5시간의 심도 있는 드론 전문교육을 진행하며 나아가 나만의 드론을 직접 조립하여 비행함으로써 미래산업 항공드론분야에 관심 많은 관내 청소년들의 공명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2030 젊은 농부들 '의기투합'

순창군 교육 수료자 모임 결성... 공동마케팅 돌입

순창군의 2030 젊은 농부들이 '더불어 농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뭉친다.

군은 올해 상반기 2030 비즈니스 모델 구축교육 수료자 16명이 의기투합해 '더불어 농부'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이를 활용한 공동마케팅에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난 3월 3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된 2030 젊은 농업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교육을 수료한 젊은 농부들이다. 총 11강좌가 진행됐으며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농업인을 발굴 육성 정책까지 원 스톱으로 지속적 관리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젊은 농업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최근 선진지 견학 활동을 끝으로 상반기 과정을 종료 했으며 수료생들은 11강좌를 통해 배운 이론과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인 '더불어 농부'라는 브랜드와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블루베리 어울마당에서 순창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부스를 지원받아 각종 체험행사 및 판매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앞으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더불어 농부'라는 브랜드로 함께 활동하면서 공동판매, 마케팅 등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더불어농부' 활동에



참여한 교육생들 중에는 순창군의 특산물인 매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두릅 등을 재배하는 농부가 다수 있고 음료, 재방, 식초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설비를 갖춘 교육생도 있어 농산물 생산은 물론 이를 제조 체험과 연계시켜 농업의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비즈니스 활동 뿐만 아니라 품앗이 활동은 물론 농촌일손돕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조합공동법인, 3년 연속 과수 생산 우수조직 선정 쾌거

남원시조합공동법인(대표 박해근, 이하 남원조공)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금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FTA기금) 평가에서 전국 19개 조합법인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1,7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다.

남원조공은 이번 평가에서 통합마케팅으로 참여농가의 실질 농가소득을 제고하였으며, 저농약 인증 농산물 확대와 도농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부

족한 농촌 인력 해소사업 등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남원조공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춘향메인'을 통해 농산물 품질제고와 마케팅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766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평가 외에도 산지유통종합 및 과실전문 APC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평가와 과수 FTA기금 평가 3년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다.

남원조공은 이번 평가에서 통합마케팅으로 참여농가의 실질 농가소득을 제고하였으며, 저농약 인증 농산물 확대와 도농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부

떠나자

맑은 물과 푸른숲이 있는 순창 강천산으로...

강천산 계곡

강천산 병풍목포

메타세쿼이아길

장군목

순창이 참 좋다

순창의 전통장류, 세계적인 일품소스(SAUCE)

제12차 순창장류축제

2017.10.20(화)~10.22(목)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